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 서막 연다

4월 2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서 개막식 개최... 한·중·일 3국 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 진행

찬란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간직한 전주시가 올해 한·중·일 3국의 문화예술 교류를 이끄는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본격적인 여정에 돌입한다.

전주시는 오는 4월 2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 개막식을 개최한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지난 2012년 중국 상해에서 열린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문화 다양성 존중이라는 전제 아래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문화 이해'의 정신을 실천하자는데 합의한 뒤 매년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선정해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전주시를 비롯해 중국 충주시(忠州)·메이저우시(梅州市), 일본의 시즈오카현(靜岡縣) 등 3개국 4개 도시가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교류를 이끈다.

이번 개막식에는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과 짜둥 중국 메이저우시 부시장, 이데노 츠토무(出野 勉) 일본 시즈오카현 부지사, 장청강(張承剛)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총영사, 오는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김해시의 흥태웅 시장 등 한·중·일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전주시 어린이합창단과 전주시립국악단이 준비한 '헬컴 투 전주' 공연으로 문을 여는 개막행사에서는 △한·중·일 테마 주제공연 △한·중·일 3국의 문화공연 △전주를 대표하는 B-BOY 그룹 '라스트포일'과 국악관현악과의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개막행사 둘째 날인 오는 4월 27일에는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중국 청두·메이저우, 일본 시즈오카현 관

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중일 지방자치단체의 영화제작 지원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동아시아 영화 포럼이 펼쳐지고,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열린다.

특히 '동아시아 영화 포럼'에는 한·중·일 3국의 창작자들과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해 영상 제작 지원 관련 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국내·외 지역 영상위 관계자 등이 현황을 비교하고 앞으로의 과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한·중·일 3국의 영화를 소개하는 동아시아 영화특별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이번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한·중·일 청소년이 참여하는 전통놀이 문화축제와 3국의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거리예술 축제인 동아시아 문화예술페스티벌 등의 기획행사 △전주세계소리축제와

세계사에전북비엔날레 등 전주의 대표적인 행사들과 한·중·일이 연계하는 교류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3국 도시 간의 우의 증진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3국 간 문화예술의 협력 및 교류방안을 모색하는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해 전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영숙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전주가 왜 한국의 대표도시로 선정됐는지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면서 "을 한해로 끝낼 것이 아니라 중일 선정도시들과 지속적인 문화교류 사업을 이어 나가 찬란문화도시 전주의 맛과 멋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기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전북환경청, 환경업무 유관기관과 소통

8개 기관 참석 환경정책 효율적 추진 위한 간담회 가져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전북지방환경청은 관내 환경업무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28일 진행했다.

간담회는 유관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으며, 이날 전주기상지청,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국립공원공단 내장산사무소 등 8개 기관이 참석했다.

특히 간담회를 통해 기관별 주요 업무 소개와 협력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어졌다.

전북지방환경청은 고속도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과 새만금유역 비점오염관리사업단 구성·운영계획을 소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실천에 동참을 요청했다.

전주시기상지청은 최근 극심한 가뭄 및 불철 산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캠버리 대회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는 영농페비닐 재활용제품(환경정화봉투 등) 개발 및 생산·유통 과정을 소개하고, 각 기관에서는 행사 시 재활용제품 사용 및 제품 홍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력이 중요하다. 관내 유관기관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환경행정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완산구,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실시

완산구청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 간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이다.

열람 대상 토지는 전주시 완산구 6만 8,198필지로 표준지 평균 변동률을 보면 전국 5.92%, 전북 6.41%, 전주시 완산구 6.16%, 전주시 덕진구 6.20%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민원지적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며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 및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 담당자와 감정평가사의 현장 재조사 및 검증,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되며,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엄익준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호남제일성, 전라감영 역사의 울림'

전주시, 5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전라감영서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매주 토요일 전라감영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경험을 즐길 수 있다.

전주시는 오는 5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간 동안 전라감영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호남제일성, 전라감영 역사의 울림(이하 호남제일성)'을 운영한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문화예술공작소가 주관하는 '호남제일성'은 하루 동안 역사해설과 전통놀이, 퀴즈 게임, 취재시험 등 4가지 문화콘텐츠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이다.

세부적으로 △전라감영 역사해설 투어 △전라감사배 전통놀이 한판! △전라감영 취재시험 △전라감영 그림퀴즈의 4가지 세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전라감영 역사해설 투어'는 호남의 수부(首府)인 전라감영을 관리했던 서유공·최유경·김성근 문제를 통해 그림에 얽힌 역사와 이야기를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전라감영 그림퀴즈'도 진행된다.



'호남제일성 관찰사를 이겨라' 프로그램 모습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오후 1시와 3시, 4시 3차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오후 2시부터는 전라관찰사 5명과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인 '전라감사배 전통놀이 한판!'에서 창과 방패, 비석치기,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즐기고 다양한 선물을 받아 갈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선 시대에 화원을 등용하기 위해 치러졌던 취재를 유쾌하게 재현한 프로그램인 '전라감영 취재시험'과 지폐 속 그림과 관련된 문제를 통해 그림에 얽힌 역사와 이야기를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전라감영 그림퀴즈'도 진행된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오후 1시와 3시, 4시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문화재청의 생생문화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난 25일을 시작으로 오는 5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10차례 진행되며, 4월 9일과 16일, 5월 14일에는 토요일 참여가 어려운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3차례의 일요일 특별 편성도 마련된다.

전라감영 입장 및 프로그램 참여는 전액 무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공작소 SNS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양은경 기자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7호점 개소

전주시 송천1동에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메워줄 돌봄센터가 들어서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전주시는 28일 초등돌봄 해소를 위한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7호점인 우리다함께돌봄센터의 여는 날(개소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이병하 부의장을 비롯한 전주시의원, 수탁법인 관계자, 인근 지역 학부모 등 20여 명이 참석해 우리다함께돌봄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

우리상가 2층(덕진구 솔내9길 9)에 마련된 우리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3명이 근무하며 독서지도와 놀이 활동,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월~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중



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에 앞서 시는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16곳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 운영해왔으며, 17호점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적협동조합 시소로부터 113.4㎡의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프로그램실과 공부방, 사무실, 주방 등을 조성했다.

우리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 시소가 민간 위탁을 받아 오는 2027년 12월까지 운영을 맡게 된다.

/조아름 기자

전주시 완산구, 급경사지 재난 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인공비와 도비 2억3000여만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3억5000만 원을 들여 책정동 254-7번지 일원인 동부대로 급경사지 사면에 계측기, CCTV, 실

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포함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교통 통행량이 많은 급경사지 위험요소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여름철 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김이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